



## 발표 전 서려드는 기우

## 1.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할 MSCI 편출

- 11월 MSCI 정기변경(11/30 리밸런싱) 결과는 11/11(금) 새벽에 발표.
- 녹십자, LG생활건강(우), 씨젠, SK케미칼 편출 가능성 'High' 의견 유지.
- 아모레G, 메리츠금융지주, CJ대한통운 편출 가능성 'Mid→High'. CJ ENM, 알테오젠은 'Low→Mid'로 조정. 메리츠증권, GS건설 'Mid'로 신규 제시.

11월 MSCI 정기변경 편출종목 예상

Code	종목	순매수 예상	가능성
A006280	녹십자	-575	High
A051905	LG 생활건강(우)	-486	High
A096530	씨젠	-862	High
A285130	SK 케미칼	-738	High
A002790	아모레 G	-588	Mid→High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603	Mid→High
A000120	CJ 대한통운	-619	Mid→High
A035760	CJ ENM	-620	Low→Mid
A196170	알테오젠	-908	Low→Mid
A008660	메리츠증권	-831	Mid(신규)
A006360	GS 건설	-1,145	Mid(신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오래된 편입/비중확대 소재, 더 점증될 가능성

- 롯데지주, 에코프로의 편입 불확실성 존재.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주가 부진하지만,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 등 편입 수요를 기대 가능.
- LG에너지솔루션은 주가 상승으로 리밸런싱 수요 '+4,444억원→+5,306억원'으로 조정.
- 성일하이텍의 스몰캡 지수 편입은 'Mid'로 제시.

편입, 비중상향 종목 예상

Code	종목	순매수 예상	가능성
A010620	현대미포조선	1,728	High
A004990	롯데지주	860	Mid
A086520	에코프로	1,917	Low→Mid
A377300	카카오페이		편입실패
A373220	LG 에너지솔루션	5,306	High
A365340	성일하이텍		Mid

주: 성일하이텍은 스몰캡 편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할 MSCI 편출

11월 MSCI 정기변경(11/30 리밸런싱)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11/11(금) 새벽에 발표된다.

당사 패시브는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출 후보군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편출입 평가기간인 10월 말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확대로 Cutoff(편출입 기준 시가총액)의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편출 종목이 더 스크린되었지만, 이전 자료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사의 편출입 필터링 기준이 보수적이었던 측면과, 과도한 종목 변경 수준을 제한하는 MSCI 지수 Logic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 주간을 앞둔 시점에서 서려드는 기우는 만에 하나라도 편출 발표에 대한 쇼크는 수급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있다. 증시 변동성 국면도 이전 정기변경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녹십자, LG생활건강(우), 씨젠, SK케미칼의 편출 의견은 High로 유지한다. 이전 전망에서는 씨젠, SK케미칼 하위 1종목 편출이었지만, 2종목 전부 편출로 수정 제시한다.

아모레G, 메리츠금융지주, CJ대한통운의 편출 가능성은 'Mid→High'로 상향 제시한다. CJ ENM과 알테오젠도 'Low→Mid'로 편출 의견을 수정한다.

메리츠증권, GS건설의 편출 가능성을 'Mid'로 신규 제시한다. 메리츠증권은 자사주 매입으로 편출 리스크가 존재하고, GS건설도 편출 가능성이 낮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1] 11월 MSCI 정기변경 편출종목 예상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편출	A006280	녹십자	46	14,667	-575	-12.48	-3.92	5.0	-29.5	High
	A051905	LG 생활건강(우)	11	6,404	-486	-46.00	-7.59	-12.0	-20.7	High
	A096530	씨젠	110	15,668	-862	-7.85	-5.50	9.9	-26.4	High
	A285130	SK 케미칼	58	15,612	-738	-12.71	-4.73	5.7	-14.9	High
	A002790	아모레 G	67	22,800	-588	-8.83	-2.58	.8	-22.3	Mid→High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49	33,041	-603	-12.35	-1.83	19.1	-11.6	Mid→High
	A000120	CJ 대한통운	63	20,189	-619	-9.89	-3.07	6.4	-23.0	Mid→High
	A035760	CJ ENM	55	16,929	-620	-11.26	-3.66	0.3	-20.9	Low→Mid
	A196170	알테오젠	173	16,658	-908	-5.24	-5.45	23.5	-37.6	Low→Mid
	A008560	메리츠증권	70	26,900	-831	-11.85	-3.09	16.2	-13.7	Mid(신규)
	A006360	GS 건설	233	20,154	-1,145	-4.91	-5.68	4.0	-23.7	Mid(신규)

주: 메리츠증권, GS 건설은 신규 의견.

## 2. 오래된 편입/비중확대 소재, 더 점증될 가능성

이전 전망에서 롯데지주, 에코프로의 편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전 자료 직후 에코프로의 주가상승으로 레이팅은 'Low→Mid'로 수정하지만, 2종목의 편입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주가가 부진했다. 편입 모멘텀도 오래된 소재이지만,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 등의 BM 준용 수준을 볼 때, 편입종목의 수혜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MSCI 정기변경에서는 발표 후 수익률은 부진한 편이었지만, 해외 연기금의 BM 리밸런싱은 시간차가 존재하는 점에서 오히려 리밸런싱일 이후에도 반등을 기대할 만한 소재로 생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기존 +4,444억원에서 +5,306억원으로 리밸런싱 금액이 증가했다. 거래대금 2.7배 수준으로 아직도 수급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후보군의 편입 모멘텀이 약하다면, 스몰캡 지수 편입 모멘텀을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성일하이텍은 상장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스몰캡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지 않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2] 편입, 비중상향 종목 예상 수급

구분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편입	A010620	현대미포조선	303	37,945	1,728	5.71	4.55	-14.4	-10.0	High
	A004990	롯데지주	96	37,243	860	8.93	2.31	-6.5	-6.3	Mid
	A086520	에코프로	1,196	33,669	1,917	1.60	5.69	11.8	16.8	Low→Mid
	A377300	카카오페이								편입실패
비중변경	A373220	LG 에너지솔루션	1,994	1,375,920	5,306	2.66	0.39	21.9	31.5	High
스몰캡	A365340	성일하이텍	382	15,682				-1.0	52.6	Mid

주: 성일하이텍 스몰캡 편입 신규의견, 커버리지 외 종목으로 리밸런싱 금액은 미추정.